

국내 · 외 화재 및 폭발사고 사례

• 2002. 8. 1 단란주점 화재

1일 08:09분경 경남 마산시 합성2동 4층 건물 지하 단란주점에서 불이 나 내부 230여 제곱미터 일부를 태웠다.

불이 날 당시 단란주점은 영업을 마친 상태여서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불이 날 당시 내부에 아무도 없었던 점으로 미루어 전기합선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중이다.

• 2002. 8. 9 의류창고 화재

9일 14:30분경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한 창고건물에서 불이 나 의류창고와 식품창고 등 270여 평을 태우고 1,500여 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30여 분만에 꺼졌다.

이 불로 창고에서 페인트작업을 하던 41살 이모 씨가 얼굴에 2도 화상을 입어 근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시너를 뿌리고 청소작업을 하다가 담뱃불을 켜는 순간 갑자기 불이 붙었다는 이씨의 진술에 따라 담뱃불에 의한 화재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2002. 8. 20 PC방 화재

20일 02:40분경 부산 남천1동 동원빌딩 1층 한 PC방에서 전기합선으로 보이는 불이 나 내부 20여 평과 컴퓨터 20여 대를 태워 소방서

추산 1,800여 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불이 날 당시 PC방은 문이 닫혀 있어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PC방 안쪽 창문 옆 벽면이 심하게 불에 탄 점으로 미루어 전기합선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중이다.

• 2002. 8. 21 철물공장 화재

21일 08:30분경 대전 가오동의 한 공업사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났다.

이 화재로 공장 1동이 모두 불에 타고 안에 있던 휘발성 물질 등에 불이 붙으면서 인근 하수구로 흘러 이 일대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났다.

또한 공장 인근에 있는 전신주에도 불길에 옮겨 붙는 바람에 대전시 가오동 일대가 정전 사태를 빚었다.

불이 나자 소방차와 화학차 등 30여 대와 소방관 등 100여 명이 출동해 진화작업을 벌였지만 화학약품과 휘발성이 강한 물질이 많아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 2002.8.26 섬유공장 화재

26일 18:50분경 대구 동구 신평동 모 섬유공장에서 기계 과열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공장 내부와 기계류 등을 태워 5천여 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1시간여 만에 꺼졌다.

불을 처음 목격한 사장 엄모 씨는 공장 내에서 종업원들과 작업을 하던 중 면직기 아래 원단에서 불길의 치솟는 것을 보고 신고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면직기 모터과열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중이다.

• 2002.9.16 이블숨공장 화재

16일 18:00시경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림공단에서 양모와 폴리에스텔을 원료로 이블숨을 제조하는 공장인 (주)D인더스트리의 2층 창고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하여 공장건물 대부분(2천여 평)을 태우고 2시간만에 진화되었으며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불이 나자 소방차 18대가 동원되어 진화에 나섰다지만 원료 폴리에스텔 등이 타면서 나온 유독가스 때문에 접근과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한편, 경찰은 정확한 화재원인에 대해 조사중이다.

• 2002.9.21 병원 화재

21일 23:45분경 제주 제주시 연동 소재 H병원(2동, 연면적 합계 13,913㎡, 9/1층) 병원본동 지하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방재실 내부 5명이 소실되고 계단 통로 등 120㎡가 연기로 그을렸으며, 화재수신기, UPS, MCC 판넬 등이 소실되었다.

불이 나자 소방차 18대가 동원되어 20분만에 진화되었지만 입원환자 170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으며, 지하 당직실에 근무하던 50살 보일러 기사가 질식되어 응급치료를 받았을 뿐 별다른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일단 변전기가 과열되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중이다.

• 2002.9.26 합성수지공장 화재

26일 02:40분경 전남 여수시 월하동 여수산업단지 내에서 ABS 분말수지를 압출하여 ABS 알갱이수지로 가공, 제조하는 공장인 (주)P플러스 월하공장의 폐기물 야적장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하여 제품창고로 번지면서 조립식 창고 2동과 그 안에 보관된 합성수지 350톤이 불에 타 9억 여원의 재산피해를 입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불이 나자 소방차 90여대가 출동해 진화에 나서 발화 3시간 여만에 큰 불길은 진화되었으나 용융수지 내부 심부화재가 다시 살아나곤 하여 진화 후 2시간여 동안 계속 마무리 진화작업이 계속되었다.

한편 경찰은 정확한 화재원인에 대하여 조사중이다.

• 2002.9.30 철강공장 화재

30일 12:30분경 경남 창원시 신촌동에 있는 각종 특수강을 만드는 C특수강(주)의 제1제강공장(연면적 25,839.7㎡, 5/1층)에서 원인 모를 사고로 전기로가 파열되면서 쇳물이 흘러내려 주변 펌프류 및 일부 기계류를 태운 뒤 진화되었다.

이번 제1제강공장 전기로 파열로 인한 화재 사고는 지난 9월 12일 제2제강공장에서 누출된 쇳물이 지하케이블에 유입되어 발생한 화재에 이어 2번째로 발생한 사고이다.

화재원인은 전기로 파열시 누출된 쇳물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㉞

情報資料 案内

- 우리 협회 위험조사부에서는 위험 관리에 관한 국내·외의 최신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정보회원 및 유관기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780-8111(총괄·서비스팀)]

자료 형태	코드	자료 형태	코드
도 서	BB	팜플렛, 카탈로그 등	PP
정기간행물 기사	JJ	시청각 자료	VV
보고서(논문집 포함)	RR	복사 자료	CC
규격·코드	SS	신문 기사	NN

■ 주요 신착자료 (2002. 8. 1 ~ 2002. 9. 30)

자 료 명	잡 지 명	출판연월	페이지	등록번호
Fire Protection for Aboveground Flammable Liquid Storage Tanks 電氣火災와 냄새센서	A P F 防災시스템	2002.06	52-53	JJ034512
Tunnel Firefighting 리스크어세스먼트의 施行	Fire & Rescue 安 全 과 健 康	2002.07	32-32	JJ034499
우리나라와 일본의 화재실태 비교	119magazine	2002.07	99-104	JJ034596
제조물책임법과 소방	소 방 안 전	2002.08	04-07	JJ034580
행동기반안전 프로세스—Behavior-Based Safety Process—	안 전 보 건	2002.08	51-55	JJ034586
Developing Fire Services Planning—a risky business— 大分(오이타)스포츠公園綜合競技場(빅아이) 防災計劃에 대하여	F I R E 建 築 防 災	2002.08	16-17	JJ034610
탱크화재 진압용 Hybrid 포 소화시스템 개발	한국안전전문 기관협의회보	2002.08	14-16	JJ034650
Holiday hazards 美國에서 最近 탱크火災 消火方法—오리온 製油所 가솔린탱크 火災事例의 考察—	Fire Prevention 安 全 工 學	2002.08	24-25	JJ034652
기계적 스트레스에 의해 손상된 비닐코드의 특성분석	전 기 안 전	2002.08	244-250	JJ034670
消防職員の 現場活動과 관련한 스트레스 對策 研究會 中間 報告書	フ ェ ス ク	2002.08	14-16	JJ034689
Setting Metrics for Process Safety	C E P	2002.08	21-32	JJ034694
Emergency response training for refineries 가솔린에 의한 放火의 防火對策 考察	Fire International 近 代 消 防	2002.08	58-62	JJ034697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현황과 향후 발전방향	손 해 보 험	2002.09	32-33	JJ034702
화재안전기준의 국제 표준화 동향	위 험 관 리	2002.09	17-23	JJ034683
		2002.09	02-12	JJ034703
		2002.09	09-11	JJ034711

위험관리정보 제122호

발행일 : 2002. 10/11 (격월간)
 발행처 : 한국화재보험협회 위험조사부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전 화 : (02)780-8111 FAX : (02)783-4094
 홈페이지 : <http://www.kfpa.or.kr>
 인쇄처 : 새한문화사 (02)713-5649